

소득수준별 가구 경제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고찰*

성 준 모

(나사렛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원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내 경제요인이 무엇인지를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구원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가족수입 만족도 변화가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원의 경우 직접적인 소득이나 지출관련 변수들의 변화가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층 가구원의 경우는 이러한 변수들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제변수중에서는 나이,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우울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구 경제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이해하였으며, 우울과 관련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서 가구경제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우울, 가구 경제요인, 소득수준, 패널 회귀분석

1. 연구의 필요성

가구의 경제적인 요인과 가구원의 우울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사회원인론은 가구의 낮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 문제가 지속되어 우울증이 발생하거나 심화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사회적 선택론은 선행적으로 우울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로 인해 가구의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른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전자의 가정에 무게를 두고 연구를 설계하였으며, 다양한 우울의 영향요인들 중 가구 내 경제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우울의 영향요인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Dohrenwend 등(1992)은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다른 인종과 민족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정신분열증이 사회적 선택론으로 보다 쉽게 설명되는 반면, 우울증은 사회원인론으로 보다 잘 설명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인종이나 민족보다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놓여있는 인종이나 민족의 우울증세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진미정, 2003 : 171에서 재인용).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따라 여러 연구들(Dowdall, Marshall, and Morra, 1990; Koster, 2006; Tracy, 2008)에서는 가구의 경제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경제적 문제와 불안정한 경제상태 등이 가구원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우울증의 발생과 지속, 그리고 심각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가구경제의 심각성과 우울증의 발병률 증가 현황을 기술하고 두 요인의 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가족적 문제를 언급한 다음,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통해 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이후 나타났던 가구내 빈곤과 가구간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1996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의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 그리고 센지수 등을 살펴보면, 빈곤이 양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인 중·하계층이 빈곤층으로 빈번하게 진입하고 있는 등 이전과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이현주 등, 2008). 그리고 가구주의 근로소득 차이에서 비롯된 가구소득격차가 커짐으로써, 사회적인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이성균, 2008).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매년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의 진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탈출률은 낮아져서 빈곤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빈곤지위는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석상훈, 2009),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이 빈곤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특성을 가진 가구원과 빈곤가구 뿐만 아니라 비빈곤층의 가구경제 추이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구경제의 취약성 증가는 가구원의 우울감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률과 우울증의 발병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talano, and Dooley, 1977; Catalano, Dooley, and Jackson, 1981). 이는 가구경제를 포함한 경제관련 요인들이 우울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울증은 정신건강 문제중 가장 흔하면서 심각한 이슈이다. WHO(2008)는 세계화와 도시화, 노화 등의 현상에 따른 만성질환의 문제중 우울증의 지속적인 증가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 정신건강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주요우울장애 일년 유병률은 6.7%이고 일본은 2.9%였으며(보건복지부, 2006 : 15-17에서 재인용), 2006년 실시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우울장애 일년 유병률은 2.5%, 평생 유병률은 5.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06). 우울증의 단순 유병률보다 심각한 것은 유병률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일년 유병률은 0.7%, 평생 유병률은 1.6%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우울증의 증가는 노인 사망률의 증가로도 이어지며(Koster et al, 2006), 다양한 가족문제의 발생에 기여한다. 특히, 낮은 가구소득과 이로 인한 가구내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자녀의 행동적 문제가 증가하게 된다

(Carol et al, 2009)는 보고도 있다. 반면, 위와 같은 우울증의 높은 유병율에 기여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서의 가구경제요인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크지 않다. 따라서 가구의 경제적 인 요인이 우울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적으로 수행된 국내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원인론이나 건강불평등이론 등에 기반을 두고 가구의 경제적인 변수를 소수 포함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가구소득은 우울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상경·권태연, 2008; 김광혁·김예성, 2008; 김연희·김선숙, 2008; 변외진·김춘경, 2006; 허준수·유수현, 2002; Beard et al, 2008; Koster et al, 2006; Lantz et al, 2001; Tracy, 2008). 가구 경제요인중 공공부조 수혜여부에 따라서도 우울정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현식, 2008; 이현주·강상경·이준영, 2008; 허준수·유수현, 2002). 또한, 가구소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업의 유무나 직업 관련 특성도 우울의 증감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선아·남경아·정향인, 2006; 임선영·김태현, 2005; Ansseue et al, 2008; Eaton et al, 2001; Link, Lennon, and Dohrenwend, 1993; Scutella and Wooden, 2008). 가구의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나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는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현식, 2008; 변외진·김춘경, 2006; 엄태완, 2006; 엄태완, 2008; 임선영·김태현, 2005). 이외에도 교육수준이나(이현주·강상경·이준영, 2008; 허준수·유수현, 2002; Ansseue et al, 2008; Koster et al, 2006; Vishal and Dinesh, 2008) 가족형태 등(Ansseue et al, 2008; Tracy, 2008)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많은 연구가 저소득층에만 집중되어 있어 일반가구의 우울과 가구경제요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우울증 발생율이 더 높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비저소득층의 우울 발생율도 낮지 않다. 정신질 환실태 역학조사에서 소득수준별로 주요우울장애 일년 발생가능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만원 미만 소득자의 발생율이 3.7%이고 200만원 이상 소득자는 3.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또한, 위에서 언급한 주관적인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원 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경제관련 변수들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연구들은 대부분 가족특성이나 소득특성 등과 관련한 일부 변수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우울의 중요한 영향요인인 가구내의 경제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횡단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과적 영향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1,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수준별로 가구 경제요인이 가구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경과를 고려한 패널 회귀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득수준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단일 분석모형이 아닌 소득수준별(일반가구와 저소득층가구)로 개별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가구와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가구경제요인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핀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시점에서, 우선 집

단별 분석을 통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 각각의 집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수행을 통하여 소득수준별로 우울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구 경제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이해함은 물론, 우울과 관련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서, 가구경제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가구 경제요인과 우울

Brenner(1973)는 일찍이 그의 저서 'Mental Illness and the Economy'에서 불안정한 경제상태는 정신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정신과 입원률도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Dowdall, Marshall, and Morra, 1990 : 141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경제적인 조건과 우울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 Turner(1995)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인지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주장한다. 즉, 직업상실 등의 이유로 가구내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것과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커지는 등의 경제적인 변화는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 개인의 자기 개념(self-concept)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부정적인 변화는 결국 개인을 우울상태에 놓이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Eaton(2001)은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와 정신장애의 발생 관련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우울과 가구 경제요인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첫째는,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로 인해서 정신장애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the causation interpretation). 두 번째는,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가 지속되면 발병원인과 관련없이 정신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는 에피소드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chronicity interpretation). 셋째는, 정신장애로 인해서 점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쪽으로 하향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drift interpretation). 넷째는, 개인이 기대하는 앞으로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정신장애는 목표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selection interpretation). 이 네가지 작용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로 우울과 가구 경제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가구 경제요인은 우울의 발생과 지속, 빈곤화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견해들은 Link와 Dohrenwend(1989)가 사회경제적 상태와 정신장애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 이론중 사회원인론(social causation)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원인론은 낮은 경제상태가 지속되면, 이로 인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낮은 소득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경제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개인의 인지적 변화와 정서적 변화를 동반하는 우울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Americans' Changing Lives Study 자료를 이용한 종단연구의 결과에서는, 부정적인 인생사건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의 유형은 과거와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주관적인 건강인식과 사망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부정적인 경제적 변화가 심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Lantz, House, Mero, and Williams, 2005). 위의 견해와는 반대로, 사회적 선택론(social selection)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선행요인이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라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유전적인 위험요인이나 초기부터 지속되는 환경적인 위험요인 등이 정신장애의 발병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낮은 경제수준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선택론보다는 사회원인론적 입장에서 우울의 영향을 알아보려는 경향이 연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우울증은 개인적, 유전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생활환경과 사회적 조건에 기반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울증의 발병과 지속이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에 의해 설명된다면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울증의 감소에 기여하는 개입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적 관점으로 경제적 요인들과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는 시도도 늘고 있는데, 이는 요즘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가 개인의 건강차이를 가져온다고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OECD의 보고(Income Distribution in OECD)를 예로 들면,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까지 OECD 가입국가의 상위 소득자 30%의 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하위 소득자 30%의 소득은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경제 불균등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Vishal and Dinesh, 2008). 이러한 경제적 지위의 불평등 요소들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회의 박탈로 이어져,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 요인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부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건강 불평등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가구 경제와 관련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로 인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불평등적 상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강상경·권태연, 2008).

본 연구는 사회원인론과 건강불평등 이론의 관점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가구 경제요인이 가구의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이 연구는 단기 종단연구로서 우울과 가구 경제요인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시간경과를 고려하여 가구 소득수준별로 변수간 영향관계를 인과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보다 분명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래의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경제요인으로 설명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우울은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Johnson and Flake, 2007). 본 연구는 이 중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경제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수행된 연구로,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가구 경제 특성 등의 하위 변수들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특성은 직접적인 가구내 경제요인은 아니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개인을 불평등적 지위에 놓이게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가구 경제요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인구학적 특성에 포함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은 통제 변수로서도 기능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다.

(1) 인구학적 특성과 우울

우울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고찰 한 결과, 인구학적 특성 중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성별, 교육수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주요 선행연구에 대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과 관련 된 주요 연구 중 가장 많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요인은 성별이다 (Coleman et al., 2006; Gilman et al., 2002; Hackett et al., 2007; Johnson and Flake, 2007; Maciejewski et al., 2001). 다시 말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울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Raffaelli 등(2007)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Zunzunegui 등(2007)이 국가간 성별에 따른 우울증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상이 남성 노인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울증상이 심한 여성은 우울증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놓임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수준을 들 수 있다. 교육수준을 집단비교한 연구에서는, 취학자녀와 미취학자녀, 고등학교 졸업자와 미졸업자, 그리고 대학 졸업자와 미졸업자 간에 우울증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Gilman et al, 2003; Cortes et al, 2009). Gilman 등(2003)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자와 미졸업자 간에 우울증상이 상이하고, 특히 고등학교 미졸업자의 우울증상이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현주·강상경·이준영, 2008; 허준수·유수현, 2002). 교육수준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교육수준과 우울이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을 가정하여 볼 수 있다.

셋째, 중년기 이후는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준수·유수현, 2002). Miech와 Shanahan(2000)은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우울의 변화를생애주기에 따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는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는 점차 우울정도가 줄어들다가 50대 이후에는 우울증도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학력수준과 함께 분석하면, 20대에는 학력수준에 따라 우울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점차 그 편차가 커져 노년기에는 학력이 낮은 집단의 우울정도가 매우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혼인상태와 가구원 수도 우울과 관련있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Zunzunegui 등(2007)은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 단독가구를 구성할 때와 배우자가 있을 때, 또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거주할 때에 따라 우울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Ansseue 등(2008)이 북유럽에서 실시한 조사자료에서도, 거주형태중 단독거주세대가 우울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aneko 등(2007)은 일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노인들이 더 우울하다고 보고하였다. 동시에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노인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우울정도가 낮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을 한 경우도 노인의 우울증상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허준수·유수현, 2002). 즉, 가장 우울한 경우는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을 때이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누군가와 동거를 하고 있다면 그 우울의 정도가 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섯째, 인구학적 특성중 종교는 우울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김애순과 윤진(1993)의 연구에서는 종교유무에 따라서 우울증상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현화(1991)의 연구에서는 종교 유무는 물론 종교의 종류에 따라서도 우울증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변외진과 김춘경(2006)의 연구에서는 종교 유무보다는 종교의 유형에 따라서 우울증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기독교인 경우가 가장 우울이 낮고 무속신앙을 포함한 기타종교인 집단의 우울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구특성과 우울

우울과 관련된 다른 요인으로는 가구특성을 들 수 있으며, 주거형태 및 주거안정성에 따라 우울정도가 상이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Harris 등(2003)은 주거상태가 자가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여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Gilman 등(2003)은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더 우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 연구로는 허준수와 유수현(2002)의 연구에서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놓인 경우,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는 가구내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자산의 의미로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며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가구 경제 요인과 우울

최근 들어 우울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요인들이 경제적 변수이다(Gilman et al., 2003; Tracy et al., 2008). 만성적인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엄태완, 2008 : 38에서 재인용).

이 중 가족의 소득수준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Beard 등(2008)이 30개월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가족수입이 적을수록 우울증 빈도가 높다고 제시한 결과는 이러한 관계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teptoe 등(2007)은 23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과 우울증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집단이

문화적 요소들과 상관없이 우울증상이 높다고 보고되는 점은 두 요인의 관계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Koster 등(2006)은 우울증 감소를 위해 사회경제적인 차이에 따른 우울증의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Turner(1995)는 직업 상실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개인의 자기 개념(self-concept)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자기가치감(self-worth)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수입의 감소가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주 증상으로 하는 우울증의 발생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소득수준에 따른 우울의 차이도 있지만 경제적 양극화, 빈곤화 현상 등으로 인한 소득이나 재산의 급격한 감소가 우울에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소득변수를 활용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와같은 결과가 지지되고 있다. 빈곤은 부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김광혁·김예성, 2008), 생활수준이 낮은 노인계층의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허준수·유수현, 2002; 박현식, 2008).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강상경과 권태연(2008)의 연구에서도 낮은 소득수준은 높은 우울정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이론을 적용하여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본 김연희와 김선숙(2008)의 연구에서도 가족자원 중 소득수준은 아동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변외진·김춘경, 2006)에서도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관련 변수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시간에 따른 소득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은 우울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연령층의 가구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Talati et al, 2007; Bromberger et al, 2009),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가구 경제수준과 월평균 소득은 우울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변외진과 김춘경(2006)의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월평균 소득차이에 따른 우울의 차이정도가 주관적인 경제수준에 따른 우울의 차이정도와 통계적으로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식(2008)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노인보다 일반 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소득수준이 우울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노인우울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김동배와 손의성(2005)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환경특성과 상관없이 주관적인 경제수준은 우울에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

3.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수집된 대표적인 사회복지 관련 패널자료로 가구원과 가구의 다양한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을 측정하고 있어 가구경제 관련 요인들과 우울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적합한 패널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도에 1차년도 조사를 하였고 2007년도에 2차년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90%자료로부터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추출하였다. 그리고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패널가구로 선정하였다. 최종 조사가구와 가구원 수는, 1차조사가 7,072가구, 14,463명, 그리고 2차조사가 6,580가구, 13,478명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구원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우울감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패널자료 분석시 가구원 고유번호를 기준변수로 하였다. 1, 2차년도의 가구원 조사자료를 병합하여 우울척도와 주요 가구 경제 관련변수에 응답하지 않아 분석자료로 부적절한 1,667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가구원 수는 1차년도가 13,774명, 2차년도가 12,500명이다.

2) 분석변수

종속변수인 우울은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의 조사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조사시점에서 과거 1주일간의 우울과 관련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리커트식 척도이다. 분석시 2개 문항('비교적 잘 지냈다', '불만없이 생활하였다')은 역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척도의 응답범위는 1점(극히 드물다)에서 4점(대부분 그랬다)까지이며, 분석시에는 변수 값을 0점에서 3점까지로 리코딩한 합 점수를 사용하였다. 합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합점수가 16보다 높으면 우울증 진단을 의심할 수 있다. Cronbach's alpha값으로 알아 본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865로 비교적 신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은 기술통계와 패널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이다.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대상자를 중위소득(60%)¹⁾ 초과, 그리고 이하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는 투입하였다. 첫째, 인구학적인 특성으로 우울과 관련된 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교 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둘째, 우울과 관련하여 가구특성과 가구의 경제지위 관련 특성으로, 가구원 수, 가구형태, 주거의 점유형태 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셋째, 가구의 소득과 지출 관련 특성으로, 1차소득, 경상소득, 순 재산액,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총 생활비, 보육비 및 사교육비, 가족수입 만족도 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소득 및 지출 변수는 연간 총액을 사용하였다.

1) 중위소득(균등화 소득)에 따른 소득계층 구분은 국가간 비교연구나 빈곤층의 진입과 탈출 등 소득계층 이동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석상훈, 2009; 여유진, 2009). 특히,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이나 정부 보조금과 같은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공적이전소득이 포괄적인 저소득계층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 사용한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표 1> 변수 정의

구분	형태	변수명	정의
우울	서열	CES-D 11	0점(극히 드물다) ~ 3점(대부분 그랬다)
인구학적 특성	dummy	성별	남자 1, 여자 0
	연속	나이	단위(세)
	서열	교육수준	무학 =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 2 중학교 졸업 이하 = 3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 전문대학 졸업 이하 = 5 대학교 졸업 이하 = 6 대학원 이상 = 7
	dummy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 1 기타 = 0(사별, 이혼, 별거, 비해당)
	dummy	종교	있음 = 1, 없음 = 0
가구 및 가구경제지위 특성	연속	가구원 수	단위(명)
	dummy	가구형태	부모자녀 가구 = 1 기타 = 0(단독, 모자, 부자, 소년소녀가장)
	dummy	주거 점유형태	자가 = 1 기타 = 0(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dummy	균등화소득의 60%	균등화소득의 60% 이하 = 1 균등화소득의 60% 초과 = 0
	dummy	기초보장 수급여부	수급권자 = 1, 비수급권자 = 0
소득 및 지출 특성	연속	1차소득 ^a	단위(연, 만원)
	연속	경상소득 ^b	단위(연, 만원)
	연속	가처분소득 ^c	단위(연, 만원)
	연속	총 재산액 ^d	단위(연, 만원)
	연속	총 부채액 ^e	단위(연, 만원)
	연속	순 재산액 ^f	단위(연, 만원)
	연속	총 생활비 ^g	단위(연, 만원)
	연속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h	단위(연, 만원)
	연속	사교육비 및 보육비 ⁱ	단위(연, 만원)
서열	가족수입 만족	1점(매우 불만족) ~ 5점(매우 만족)	

- a. 1차소득: 근로소득(상용근로자 임금소득,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한 연 소득 합계이다.
- b. 총 소득(경상소득): 1차소득에 1년동안의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 c. 가처분소득: 경상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과 세금(소득세)을 제외한 소득이다.
- d. 총 재산액: 거주주택,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기타재산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재산 합계이다.
- e. 총 부채액: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받은돈), 외상 및 미리 단 계돈, 기타부채 등을 합산한 부채 합계액이다.
- f. 순 재산액: 총 재산액에서 총 부채액을 제외한 재산 합계액이다.
- g. 총 생활비: 1년동안 동거가구원과 비동거가구원이 현금생활비와 지원받은 현물의 현금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생활비에는 식료품비(자가소비 포함), 주거비(월세 제외),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송금보조(따로 사는 가족에게 보내는 교육비송금, 생활비보조),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 h.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직접세액의 1년 합계이다.
- i. 사교육비 및 보육비: 가구내 모든 아동의 보육비와 사교육비 1년 합계액이다.
- j. 가족수입 만족 정도: 가족의 수입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 정도를 1점(매우 불만족)에서 5점(매우 만족) 척도로 조사하여 평균을 구한 수치이다.

3) 분석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 STATA(version 9)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고정된 패널을 반복해서 조사한 자료이므로 균형 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구원을 기준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위한 패널자료로 변환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개체 병합(case merge)하여 이를 다시 가구원 개인 부여번호에 따라 세로연속형태의 패널자료(long type panel data)로 변환하였다. 패널자료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우울척도와 주요 가구 경제관련 변수에 응답하지 않아 분석자료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을 분석자료에서 제거하였다. 자료의 분석전 개인 표준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종속변수를 포함한 변수들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알아 보았다. 둘째, 가구 및 가구 경제지위 특성의 하위 범주간 통계적 차이와 연도별 가구소득 평균차이를 통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시간의 진행에 따른 독립변수의 변화가 우울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기위해 패널 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추정법이 적용되는 패널 회귀분석은 조사대상으로부터 반복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므로, 횡단자료와 달리 집단간의 이분산성, 집단간 상관관계, 자기상관 등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하게 된다. 패널 회귀분석은 GLS의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u_i (고정오차)가 다른 변수들의 회귀계수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그룹(가구원)간의 기울기는 같고 절편은 각자 다르다고 가정하며, 분석시에는 그룹(가구원)마다 더미변수를 만들어 이의 회귀 추정치를 구하게 된다(Baum, 2006 ; StataCorp. 2005). 다음은 본 연구의 분석에 적용된 패널 회귀식이다.

$$Y_{it} = \beta_0 + \beta_1 X_{1it} + \beta_2 X_{2it} + \beta_3 X_{3it} + \beta_4 X_{4it} + \beta_5 X_{5it} + \beta_6 X_{6it} + \beta_7 X_{7it} + \beta_8 X_{8it} + \beta_9 X_{9it} + \beta_{10} X_{10it} + \beta_{11} X_{11it} + \beta_{12} X_{12it} + \beta_{13} X_{13it} + \beta_{14} X_{14it} + \beta_{15} X_{15it} + u_i + e_{it}$$

Y= 우울(종속변수)

β_0 = 절편

X1= 성별, X2= 나이, X3= 교육수준, X4= 혼인상태, X5= 종교, X6= 가구원 수, X7= 가구형태, X8= 주거점유형태, X9= 1차소득, X10= 경상소득, X11= 순재산액, X12=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X13= 총 생활비, X14= 사교육비 및 보육비, X15= 가족수입만족도

i(panel variable) = 개인 ID

t(time variable) = 연도(1차 = 2006년, 2차=2007년)

u_i = 고정오차(시간(연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오차항)

e_{it} = 변동오차(시간(연도)에 따라 변화하는 오차항)

4. 분석 결과

1)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의 내용과 같다.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여자가 각각 55.1%와 55.2%로 남자보다 다소 많이 조사되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1차년도 27.5%, 2차년도 28.0%) 다음으로 30대와 40대가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가 가장 많았고(1차년도 30.5%, 2차년도 29.8%)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가 가장 적었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1차년도 70.9%, 2차년도 70.2%) 미혼인 경우도 각각 16.5%와 16.9%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를 조사한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가 다소 많았으며, 1차년도(52.1%)에 비해서 2차년도(54.1%)에 종교가 있다는 응답이 다소 증가하였다.

<표 2> 인구학적 특성

n(1차년도=13,774, 2차년도=12,500)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6,180	44.9	5,597	44.8
	여	7,594	55.1	6,903	55.2
나이	20대 이하	1,200	9.0	1,247	10.4
	30대	3,213	24.2	2,834	23.7
	40대	3,133	23.6	2,712	22.6
	50대	2,067	15.6	1,830	15.3
	60대 이상	3,649	27.5	3,355	28.0
교육수준	무학	1,468	10.7	1,376	11.0
	초등학교	2,785	20.2	2,580	20.6
	중학교	1,600	11.6	1,436	11.5
	고등학교	4,204	30.5	3,731	29.8
	전문대학	1,071	7.8	971	7.8
	대학교	2,381	17.3	2,173	17.4
대학원 이상	265	1.9	233	1.9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9,401	70.9	8,409	70.2
	사별	1,133	8.5	1,048	8.7
	이혼	416	3.1	398	3.3
	별거	121	0.9	94	0.8
	미혼	2,187	16.5	2,019	16.9
	비해당(남17세, 여15세 이하)	4	0.0	10	0.1
종교	있음	6,887	52.1	6,459	54.1
	없음	6,329	47.9	5,490	45.9

2) 가구 및 가구의 경제지위 관련 특성

분석대상자의 가구특성과 가구의 경제지위와 관련한 특성은 <표 3>과 같다. 분석대상 가구의 가구 원 수는 평균 3.04명(표준편차=1.28)이었다. 가구형태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1차년도 87.6%, 2차년도 87.1%) 단독가구도 연차별로 각각 10.9%와 11.4%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점유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연차별로 각각 58.8%와 60.0%로 가장 많았고 전세와 월세가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중위 균등화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한 결과에서는 일반 가구가 연차별로 각각 60.2%와 64.5%였고 저소득 가구가 각각 39.8%와 35.4%였다.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일반가구의 비율이 늘고 저소득 가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대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보장수급 가구는 1차년도의 7.2%에서 2차년도에는 8.4%로 증가하였다.

<표 3> 가구 및 가구의 경제지위 관련 특성

n(1차년도=13,774, 2차년도=12,500)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Chi-Square Tests
		빈도(명)	백분율 (%)	빈도(명)	백분율 (%)	
가구원 수		mean = 3.04 (s.d=1.28)				
가구 형태	단독가구	1,508	10.9	1,425	11.4	1.85
	모자가구	113	0.8	103	0.8	
	부자가구	40	0.3	36	0.3	
	소년소녀가장	47	0.3	49	0.4	
	부모-자녀가구	12,066	87.6	10,887	87.1	
주거의 점유형태	자가	8,101	58.8	7,503	60.0	10.17
	전세	2,193	15.9	1,932	15.5	
	보증부 월세	1,892	13.7	1,697	13.6	
	월세	337	2.4	340	2.7	
	기타	1,247	9.1	1,024	8.2	
중위 균등화소득의 60% 기준	일반 가구	8,286	60.2	8,079	64.6	55.87***
	저소득 가구	5,488	39.8	4,421	35.4	
기초보장 수급형태	일반수급가구	707	5.1	760	6.1	33.89***
	조건부수급가구	99	0.7	62	0.5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	187	1.4	221	1.8	
	비 해당	12,781	92.8	11,448	91.6	

3) 가구의 소득 및 지출 특성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지출에 대한 특성은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다. 1차년도와 2차년도를

비교하면 순 재산액과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가구경제요인들의 차이정도가 유의미하였다. 그 중 연도별 가구의 총 생활비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 소득요인들의 차이보다 재산요인들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가 낮았으며, 이에 따라 사교육비와 보육비 지출도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입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는 연차별로 각각 평균 2.72와 2.73이었다. 이는 중간값보다 다소 낮은 수치로 소득이나 재산평균의 변화와 관계없이 연차별 평균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

〈표 4〉 가구의 소득 및 지출 특성

n(1차년도=13,774, 2차년도=12,500), 단위 : 만원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t-tests	
	연 합계 (표준편차)	연 합계 (표준편차)		
소 득	1차 소득	3,081.25 (2,312.61)	3,361.31 (2,739.74)	-7.85***
	총 소득(정상소득)	3,497.47 (2,641.30)	3,922.86 (3,602.36)	-10.77***
	가처분 소득	3,137.60 (3,436.44)	3,565.40 (3,286.91)	-10.08***
재 산	총 재산액	20,488.59 (35,925.17)	26,348.84 (100,554.70)	-6.28***
	총 부채액	2,854.45 (6,152.05)	3,255.80 (7,605.89)	-4.13***
	순 재산액	17,620.29 (34,346.70)	23,098.28 (99,984.72)	-0.84
	총 생활비	2,815.65 (1,747.69)	3,161.85 (2,032.97)	-14.54***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320.44 (473.44)	357.52 (561.65)	-5.69***	
사교육비 및 보육비 지출	509.47 (421.11)	481.52 (429.99)	3.113**	
가족수입 만족 정도	2.72 (0.92)	2.73 (0.10)	-1.19	

4) 우울특성

우울과 관련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대상자의 우울정도는 1차년도에 평균 8.16(표준편차=3.73)에서 2차년도에 8.39(표준편차=3.54)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우울증 절단점인 16점에는 크게 미치지 않아 전반적으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절단점 16점을 기준으로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한 결과 연차별로 각각 전체의 4.2%와 4.1%가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의 우울증 일년 유병률 2.5%보다는 높고 평생유병률 5.6%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표 5〉 우울특성

n(1차년도=13,774, 2차년도=12,500)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t-test
	평균8.16 (표준편차3.73)	평균8.39 (표준편차3.54)	Chi-Square Test
우울 점수 합계	552(4.2%)	488(4.1%)	-5.01***
우울증 여 부	우울	12,710명(95.8%)	0.12
	비우울	11,490(95.9%)	

5) 우울 결정요인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연도별로 분산팽창계수(VIF)를 알아보았다. 1차년도의 경우 VIF값이 변수에 따라 1.038(중교) ~ 6.340(경상소득)으로 나타났으며, 2차년도의 경우 1.046(중교) ~ 4.344(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결과 VIF값이 10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시간변화에 따라서 가구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우울에 대한 가구 경제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므로, 보다 명확한 결론 도출을 위해 회귀분석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일반 가구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는 절대적 빈곤을 반영하는 수급권을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상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한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함으로써, 결론에서 보다 포괄적인 저소득층 대상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²⁾. 투입한 독립변수들중 성별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값으로 패널 회귀분석의 통계분석과정에서 통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구소득 관련 변수중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들(1차소득, 경상소득, 총생활비, 사교육비 및 보육비 등)의 회귀계수가 0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단위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일반 가구원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분석모형이 적합하지 알아보기 위해 고정오차와 회귀계수들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고정오차와 회귀계수의 상관관계(-0.6743)가 비교적 높고 F검증을 통해 고정오차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무선효과 모형보다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패널 독립변수들에 의한 설명정도가 오차항의 설명정도보다 높아($\rho=0.285$) 분석결과를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분석대상 가구원의 가족수입 만족도 변화는 우울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1.09$). 가구원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수입 만족정도의 증가는 우울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소득변화보다 인지적인 주관적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통제변수로 투입한 나이($t=6.35$), 혼인상태($t=4.54$)도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으며, 기혼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더 우울한 것으로

2)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잠재적 빈곤계층까지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일반가구와 비교하였다. 2006년 현재 경상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전 가구의 5.04%로 약 82만 가구이며, 인구로는 전 인구의 3.51%인 약 170만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해 절대빈곤층인 수급가구는 전체가구의 4.58%, 수급가구원은 전 인구의 3.37%로 차상위계층의 규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차상위계층 가구원의 특성은 여성가구주와 노인가구주, 그리고 저학력 가구주 비율이 높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수급가구의 가구소득보다 이들 차상위계층의 가구소득이 적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현주 등, 2008). 따라서 이와 같이 빈곤층의 범위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포괄적인 저소득계층의 우울에 대한 가구경제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타났다. 소득 및 지출 관련 변수들중에서는 사교육비와 보육비 지출($t=-2.61$), 1차소득($t=-2.29$), 총 생활비 지출($t=2.15$), 경상소득($t=2.02$)이 시간경과에 따라 우울정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변수중 1차소득의 변화는 우울의 감소에 기여한 반면, 경상소득의 변화는 우울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경상소득에 포함된 이전소득이 순수한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으로 이루어진 1차소득에 비해 가구원의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적이전소득이 소득재분배나 절대빈곤을 감소에는 기여하지만 상대빈곤을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노인과 같은 특정계층의 빈곤을 감소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여유진, 2009). 그리고 시간경과에 따라 가구의 총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고 사교육비와 보육비의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우울정도를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패널 회귀분석을 통한 우울의 영향요인 분석

		(중위소득 60% 초과 일반 가구원)				
Fixed - effects (within) regression		Number of obs = 5000				
Group variable (i): id		Number of groups = 3220				
R-sq: within = 0.0183		Obs per group: min = 1				
between = 0.0247		avg = 1.6				
overall = 0.0143		max = 2				
corr(u_i, X) = -0.6743		F(13,1767) = 2.53				
		Prob > chi2 = 0.0019				
	Coef.	S.E	t	P	[95% Conf. Interval]	
성별(남=1,여=0)	-	-	-	-	-	-
나이	.036	.005	6.35 ***	0.000	.025	.048
교육수준	-.037	.048	-0.78	0.438	-.131	.056
혼인상태(배우자유=1,기타=0)	.253	.056	4.54 ***	0.000	.143	.363
종교(유=1,무=0)	-.001	.089	-0.01	0.995	-.174	.173
가구원 수	-.098	.059	-1.66	0.097	-.214	.017
가구형태(부모자녀가구=1,기타=0)	-.038	.153	-0.25	0.802	-.339	.262
주거점유형태(자가=1,기타=0)	.070	.039	1.78	0.075	-.006	.147
1차소득	-.000	.000	-2.29 *	0.022	-.000	-.000
경상소득	.000	.000	2.02 *	0.044	1.03e-1	.000
순재산액	-4.82e-1	2.01e-1	-0.24	0.811	-4.43e-1	3.46e-1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000	.000	-0.38	0.701	-.000	.000
총 생활비	.000	.000	2.15 *	0.032	8.99e-1	.000
사교육비 및 보육비	-.000	.000	-2.61 **	0.009	-.000	-.000
가족수입만족도	-.562	.050	-11.09 ***	0.000	-.660	-.462
_cons	8.268	.892	9.27	0.000	6.519	10.017
sigma_u	1.607					
sigma_e	2.540					
rho	0.285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 = 0 : F(3219, 1767) = 1.52 Prob > F = 0.000						

*p<.05 **p<.01 ***p<.001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원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

변수들이 영향력을 검토하기 전, 고정오차와 회귀계수들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 모형에서 고정오차와 회귀계수의 상관관계(-0.5744)는 높지 않지만 수용할만 하고 F검증을 통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패널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정도(rho=0.250)는 오차항의 설명정도보다 높아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우울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족수입 만족도(t=-6.81), 교육수준(t=-4.88), 혼인상태(t=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주관적인 수입만족 정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일반 가구와 달리 소득이나 재산, 지출과 관련한 변수들은 시간경과에 따라 우울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의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보면, 분석대상 전체 가구의 소득과 같은 경제관련 수치의 편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소득이 많은 가구의 소득증감은 가구의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겠지만, 시간경과에 따른 소득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저소득층 가구는 우울감의 심각성과 상관없이 우울정도의 변화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표 7> 패널 회귀분석을 통한 우울의 영향요인 분석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가구원)

Random - effects GLS regression	Number of obs = 1129					
Group variable (i): id	Number of groups = 918					
R-sq: within = 0.0876	Obs per group: min = 1					
between = 0.0029	avg = 1.2					
overall = 0.0038	max = 2					
corr(u_i, X) = -0.5744	F(12,199) = 1.59		Prob > F = 0.0961			
	Coef.	S.E	t	P	[95% Conf. Interval]	
성별(남=1,여=0)	-	-	-	-	-	-
나이	.010	.014	0.77	0.442	-.016	.037
교육수준	-.631	.129	-4.88 ***	0.000	-.885	.377
혼인상태(배우자유=1,기타=0)	.325	.124	2.62 **	0.009	.082	.569
종교(유=1,무=0)	.164	.263	0.62	0.553	-.352	.680
가구원 수	-.071	.157	-0.45	0.653	-.380	.238
가구형태(부모자녀가구=1,기타=0)	.073	.206	0.35	0.725	-.331	.477
주거집유형태(자가=1,기타=0)	.192	.112	1.72	0.086	-.027	.412
1차소득	2.44e-07	.000	0.00	0.999	-.000	-.000
경상소득	.000	.000	0.39	0.699	-.000	.000
순재산액	-5.16e-06	9.41e-06	-0.55	0.584	-.000	.000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003	.001	-1.76	0.078	-.007	.000
총 생활비	-.000	.000	-0.73	0.468	-.000	.000
사교육비 및 보육비	.000	.000	0.43	0.665	-.001	.001
가족수입만족도	-1.030	.151	-6.81 ***	0.000	-1.326	-.733
_cons	13.504	1.601	8.44	0.000	10.367	16.641
sigma_u	2.060					
sigma_e	3.563					
rho	0.250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 = 0 :	F(917, 199) = 1.40		Prob > F = 0.0020			

*p<.05 **p<.01 ***p<.001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 1,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수준별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구내 경제요인이 가구원의 우울정도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패널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우울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구 경제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논의를 통해 우울과 관련한 가구경제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반 가구원과 저소득층 가구원 모두 주관적인 가족수입 만족도 변화가 우울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원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가구의 수입에 대한 만족정도의 증가는 우울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소득의 변화보다 인지적인 주관적 만족도가 가구원의 우울에 있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변외진과 김춘경(2006)의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의 정도에 따라 우울정도가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여 이러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지적인 평가가 행복감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에게는 단순한 실제 가구소득 보존을 위한 지원책보다는 사회적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주관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정책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실천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별 또는 집단별로 차별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저소득층 가구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교성, 2009). 저소득층 가구원의 욕구에 기초한 직접적인 지원책은 물론, 저소득층 가구원의 일을 통한 경제적 소득 창출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차원의 사회적 의미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구원의 우울감소에 기여가 가능한 것이다(진미정, 2003).

둘째, 일반 가구원의 경우 직접적인 소득이나 지출관련 변수(사교육비와 보육비 지출, 1차소득, 총생활비 지출, 경상소득)들의 변화가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층 가구원의 경우는 소득 및 지출변수들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결과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결과는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간의 소득 양극화현상과 시간에 따른 소득변화의 집단간 편차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가구간 불평등 정도와 빈곤격차비율 문제에 따른 사회적 소득불평등 구조의 심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이성균, 2008 ; 이현주 등, 2008). 즉, 집단간 소득 및 재산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일반 가구원의 소득증감은 우울과 같은 정서적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지만, 저소득층이면서 소득의 변화가 적은 저소득층 가구원은 우울감의 심각성과 상관없이 우울정도의 변화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구간의 소득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키면서 가구내의 안정적인 경제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취약층인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원과 일반가구중 위험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기

초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실직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를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며 최저임금을 대폭 현실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들면, 영세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의 수혜자격이나 수준, 기간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능을 강화하여 절대빈곤층은 물론 비수급 빈곤층과 잠재적인 빈곤층까지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시경제 회복, 친기업 위주의 정책 등을 통한 분배효과는 저소득층 가구원에게 미치지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이나 사회보장정책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기구, 2009). 이러한 맥락에서 김교성(2009)이 제안한 기본소득제도 도입은 모든 국민의 소득권을 인정하면서 대상별로 일정 소득을 일괄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정책대안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반 가구의 경우 통제변수중 나이와 혼인상태,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수준과 혼인상태가 우울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수준을 떠나 연령의 증가는 우울증가와 관계가 있으며, 특히 중년기 이후부터 노년기까지는 연령 증가에 따라 우울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허준수·유수현, 2002 ; Miech and Shanahan, 2000). 따라서 연령에 따른 가구내 위험인구를 파악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정책과 제도시행에 있어 연령이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신건강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개별적화된 생애주기별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강상경·권태연, 2008). 혼인상태 또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우울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배우자나 가족이 있는 경우 우울정도가 낮다고 보고한 연구결과(Ansseue et al, 2008 ; Kaneko et al, 2007 ; Zunzunegui et al, 2007 ; 허준수·유수현, 2002)와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기혼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결과를 통하여 추론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 볼 수는 있겠다. 변외진과 김춘경(2006)의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재혼한 경우보다 우울감이 두 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지만 결혼지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우울감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의 질과 결혼만족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혼인상태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영향요인으로 교육수준을 들 수 있다. 연구결과 저소득층에서만 교육수준이 우울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서비스접근성의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불평등적 지위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원은 상대적으로 예방이나 치료 또는 상담을 위한 서비스 접근에 있어 경제적 장벽을 경험한다는 것이다(강상경·권태연, 2008 : 337-338에서 재인용). 특히, 노년기는 학력에 따른 우울정도의 편차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Miech and Shanahan, 2000), 저소득층의 낮은 학력을 가진 노인 가구원은 우울의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소득수준별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적 가구특성과 지위, 소득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구체화하였다는 면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구내 경제적인 차이가 가구원의 우울정도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종단적 자료분석으로 탐색하였다는 면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일반 가구원과 저소득층 가구원의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개입의 방향도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의 통제감, 신념,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인 변수들과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 참여 등과 같은 사회적 변수들은 경제적 요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 점은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종단적인 고찰을 시도하였지만, 패널자료의 누적 차수가 아직 부족하여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 한계점은 이후 패널자료들이 누적되면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지면 해소되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상경·권태연. 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332-355.
- 김광혁·김예성. 2008.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부모의 우울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1-13.
- 김교성. 2009.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33-57.
- 김동배·손의성. 2005. "한국노인의 우울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노년학』 25(4): 167-187.
- 김선아·남경아·정향인. 2006.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5(2): 179-186.
- 김연희·김선숙. 2008. "사회자본이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6: 103-127.
- 김애순·윤진. 1993. "중년기 위기감1 : 그 시기확인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1): 1-16.
- 김현화. 1991.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기간행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 2009.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95-132.
- 박현식. 2008. "공공부조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41: 7-26.
- 변외진·김춘경. 2006. "중년여성의 우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7): 125-139.
- 보건복지부. 2006.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석상훈. 2009. "소득계층이동의 추이와 변화요인". 『사회보장연구』 25(1): 25-44.
- 어기구. 2009.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2009년 한국사회보장학회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자료집: 61-88.
- 엄태완. 2006. "저소득층의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 58(1): 59-85.
- 엄태완. 2008. "빈곤층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36-66.
- 여유진. 2009. "공적이전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보장연구』 25(1): 45-68.
- 이성균. 2008.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 소득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 도시임금소득자 가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8(4): 119-146.
- 이현주 · 강상경 · 이준영. 2008. "노인우울증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요인과 건강행태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8(4): 1129-1145.
- 이현주 · 강신욱 · 김태완 · 노대명 · 박세경 · 손창균 · 신현웅 · 이태진 · 정경희 · 최현수 · 김안나 · 박능후 · 이선우 · 홍경준 · 유진영 · 전지현 · 유정예 · 윤필경. 2008.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임선영 · 김태현. 2005. "청년실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51-73.
- 진미정. 2003.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과 우울 증세간의 인과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7): 170-184.
- 허준수 · 유수현. 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7-35.
- Ansseue, M., B. Fischler., M. Dierick., A. Albert., S. Leyman and A. M. Pharm. 2008. "Socioeconomic Correlates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d Major Depression in Primary Care : The Generalized Anxiety and Depression Impact Survey II." *Depression and Anxiety* 25: 506-513.
- Baum, C. F. 2006.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etrics Using Stata*. Stata Press.
- Beard, J. R., M. Tracy., D. Valhov and S. Galea. 2008. "Trajectory and Socioeconomic Predictors of Depression in a Prospective Study of Residents of New York City." *Annals of Epidemiology* 18(3): 235-243.
- Bromberger, J. T., H. M. Kravitz., K. Matthews., A. Youk., C. Brown and W. Feng. 2009. "Predictors of First Lifetime Episodes of Major Depression in Mid-life Women." *Psychological Medicine* 39: 55-64.
- Carol, D., D. Wendy., M. Beverly and S. Kathy. 2009. "Poverty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22(1): 23-32.
- Catalano, R. and D. Dooley, 1977. "Economic Predictors of Depressed Mood and Stressful Life Events in a Metropolitan Commun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8: 292-307.
- Catalano, R., D. Dooley and R. Jackson. 1981. "Economic Predictors of Admissions to Mental Health Facilities in a Nonmetropolitan Commun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284-297.
- Coleman, R., L. Morison., K. Paine., R. A. Powell and G. Walraven. 2006. "Women's Reproductive Health and Depression."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 41: 720-727.
- Cortes, R. C., C. B. Fleming., W. Alex Mason and R. F. Catalano. 2009. "Risk Factors Linking Maternal Depressed Mood to Growth in Adolescent Substance Use."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7(1): 49-64.
- Dowdall, G. W., J. R. Marshall and W. A. Morra. 1990. "Economic Antecedents of Mental

- Hospitalization : A Nineteenth-Century Time-Series Tes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141-147.
- Eaton, W. W., C. Muntaner., G. Bovasso and C. Smith. 2001.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ve Syndrome : The Role of Inter- and Intra-generational Mobility, Government Assistance, and Work Environ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 277-294.
- Gilman, S. E., I. Kawachi., G. M. Fitzmaurice and S. L. Buka. 2003. "Socio-economic Status, Family Disruption and Residential Stability in Childhood : Relation to Onset, Recurrence and Remission of Major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33: 1341-1355.
- Gilman, S. E., I. Kawachi., G. M. Fitzmaurice and S. L. Buka. 2002. "Socioeconomic Status in Childhood and the Lifetime Risk of Major De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1(2): 359-367.
- Hackett, R. J., D. Sagdeo and F. H. Creed. 2007. "The Physical and Social Associations of Common Mental Disorder in a Tribal Population in South India."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42: 712-715.
- Harris, T., D. G. Cook., C. Victor., E. Rink., A. H. Mann., S. Shah., S. Dewilde and C. Beighton. 2003.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People- a Survey of Two General Practice Populations." *Age and Ageing* 32: 510-518.
- Johnson, P. L. and E. M. Flake. 2007.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Outcome." *Pediatric annals* 36(4): 196-202.
- Kaneko, Y., Y. Motohashi., H. Sasaki and M. Yamaji. 2007.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and Related Risk Factors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Elderly Persons Living in a Rural Japanese Community : a Cross-Sectional Stud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3(6): 583-590.
- Koster, A., H. Bosma., G. I. J. M. Kempen., B. W. J. H. Penninx., A. T. F. Beekman., D. J. H. Deeg and J. van Eijk. 2006.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Incident Depression in Older Adults : The Role of Psychosocial Factors, Physical Health Status, and Behavioral Factor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1: 619-627.
- Lantz, P. M., J. S. House., R. P. Mero and D. R. Williams. 2005. "Stress, Life Events,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Health : Results from the Americans' Changing Lives Stud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 274-288.
- Lantz, P. M., J. W. Lynch., J. S. House., J. M. Lepkowski., R. P. Mero., M. A. Musick and D. R. Williams. 2001.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Health Change in a Longitudinal Study of US Adults : The Role of Health-risk Behavio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3: 29-40.
- Link, B. G. and B. P. Dohrenwend. 1989. "The Epidemiology of Mental Disorder." pp. 102-127 in *The Handbook of Medical Sociology*, edited by Howard E. Freeman and Sol Levin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College.
- Link, B. G., M. C. Lennon and B. P. Dohrenwend. 1993.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on : The Role of Occupations Involving Direction, Control, and Plann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1351-1387.
- Maciejewski, P. K., H. G. Prigerson and C. M. Mazure. 2001. "Sex Differences in Event-related Risk

- for Major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31: 593-604.
- Miech, R. A. and Shanahan, M. J. 2000.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on over the Life Cour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162-176.
- Raffaelli, M., S. H. Koller., E. Cerqueira-santos and N. D. Morais, 2007. “Developmental Risk and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Low-income Brazilian yout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565-584.
- Scutella, R. and M. Wooden, 2008. “The Effects of Household Joblessness on Mental Healt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7: 88-100.
- StataCorp. 2005. Stata Statistical Software : Release 9. College Station, TX: StataCorp LP.
- Steptoe, A., A. Tsuda., Y. Tanaka, and J. Wardle. 2007. “Depressive Symptoms, Socio-Economic Background, Sense of Control, and Cultural Factors in University Students from 23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4(2): 97-107.
- Talati, A., P. J. Wickramaratna., D. J. Pilowsky., J. E. Alpert., G. Cerda., J. Garber., C. W. Hughes., C. A. King., E. Malloy., A. Bela Sood., H. Verdeli., M. H. Trivedi., A. J. Rush and M. M. Weissman, 2007. “Remission of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Symptoms among Single Mothers.”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42: 962-971.
- Tracy, M., F. J. Zimmerman., S. Galea., E. McCauley and A. V. Stoep. 2008. “What Explains the Relation between Family Poverty and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2: 1163-1175.
- Turner, J. B. 1995. “Economic Context and the Health Effects of Un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213-229.
- Vishal, B. and B. Dinesh, 2008. “Globalization: Mental Health and Social Economic Factors.” *Global Social Policy* 8(2): 378-396.
- Zunzunegui, M. V., N. Minicuci., T. Blumstein., M. Noale., D. Deeg., M. Jylha and N. L. Pedersen. 2007.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 A Cross-national Comparison.”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42: 198-207.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on by Household's Economic Factors According to Income Levels

Sung, Jun-Mo

(Korea Nazaren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depression by household's economic factors with income levels using the wave 1, 2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As a result, changes in income satisfactio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levels. In non-poor households, the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have effects on depression levels. But poor households do not have any effects. Among the control variables, age, marital status, and education level are influential factors on the depression levels.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 was able to recognize the economic factors in household that influence the depression levels. and The policy directios for household's economic support were discussed.

Key words: depression, economic factors in household, income levels, panel regression analysis

[논문접수일: 09. 09. 16, 심사일(재심사): 09. 09. 28(11.02), 게재확정일: 09. 11. 16]